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2000년도 표어 ☉

“우리의 소망되신 예수 그리스도” (딤후 1:1)

☉ 행동지침 ☉

- 1. 하나님의 전(殿)을 짓는 해가 되도록 한다.
- 2.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한 세기가 되도록 한다.
- 3.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장하는 새 천년이 되도록 한다.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02) 517-7651~5 팩스 (02) 512-1225 <http://seoulchurch.or.kr>

2001년 서리집사 · 교구일꾼임명

Ⅲ부 예배후 교구총회 · 서리집사 728명 내년 봉사말아

2001년도 서리집사 임명식이 오늘 I, II, Ⅲ부예배시에 있다. 내년에 봉사할 서리집사는 남자 320명, 여자 408 명 등 모두 728 명이다. 이중 처음으로 임명받는 서리집사는 55명이며 이들은 당회의 추천을 받아 지난 달 교육과 면담을 거쳐 오늘 임명을 받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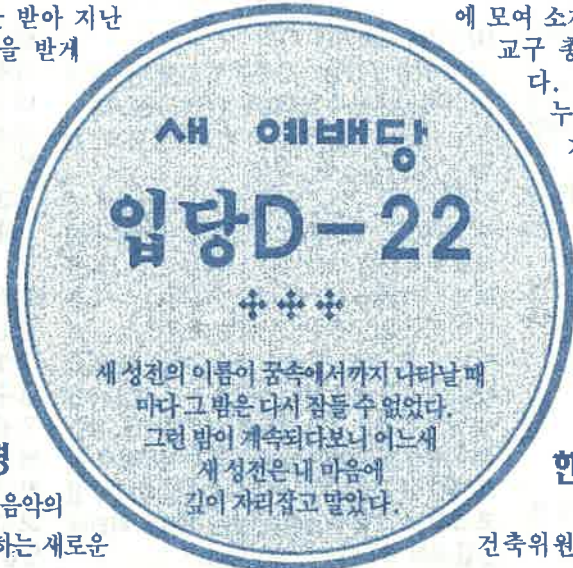
교구 총회가 오늘 Ⅲ부 예배후에 1층 예배실에서 열린다. 오늘 모이는 교구 총회는 교구장, 간사, 남, 여 다락방장, 부다락방장 등 내년에 수고할 교구 일꾼들이 한자리에 모여 소개하는 시간을 갖는다.

교구 총회가 끝난후 교구별 속회가 열린다. 속회에서 교구일꾼들은 인사를 나누고 담당교역자와 안전 토의에 들어가게 된다. 교구별 속회 모임장소는 1,2 교구는 3층 소망부실, 3,4,9,10,11,12 교구는 1층 예배실, 5,6,7,8교구는 2층 예배실이다.

12개 교구장등 일꾼임명

집사 임명식에 이어 12개 교구의 교구장, 간사, 다락방장, 부다락방장등 교구 일꾼의 임명식도 갖는다.

교구총회후 교구별 속회



핸드벨림 정식 출범-

‘그레이스 핸드벨 콰이어’로 명명

‘하늘의 소리’라고 하는 핸드벨은 교회 음악의 꽃으로 예배에서 중요한 음악적 역할을 하는 새로운 분야이다. 이에 우리교회는 1차 핸드벨림 오디션을 마치고 최종 정예 14명으로, 팀의 명칭을 ‘그레이스 핸드벨 콰이어’로 명명하고 출범하였다. 그레이스 핸드벨 콰이어는 앞으로 매주 2차례 이상 강도 높은 훈련으로 다듬어 금년 12월25일 새 예배당 입당예배에 참여하여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것이다.

매주 화, 목 밤7시 현장정리 한다.

건축위원회는 새 예배당의 건축 마무리를 짓기위해 성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밤7시 부터 전교인 자원봉사자들의 노력봉사가 이루어진다. 특별히 제직 여러분의 봉사가 하나님집 건축에 보탬이 되어 주기를 기대해 본다

교사 자격증 준다.

2001년도 교사로 봉사할 분들에게 교사 자격증이 수여된다. 교육위원회는 15시간 이수자에게 정교사 자격증을 주고 이미 교회학교 교육경력 2년 이상된 자에게는 7시간의 교육을 이수하면 자격증을 주기로 하였다. 교사세미나는 12월4일부터 매일 새벽기도후 시작된다.

※ 12월 행사 일정

- ▶ 12.3 · 서리집사 · 교구일꾼 임명식 · 교구총회 서울성경대학 수료식
- ▶ 12.4 · 교사대학 개강
- ▶ 12.6 · 제1,2 권사회 총회
- ▶ 12.10 · 찬양대원 임명
- ▶ 12.13 · 찬양대원 임명
- ▶ 12.17 · 교회학교 교사 임명 · 성탄 축하 찬양예배
- ▶ 12.20 · 12월 학습세례식
- ▶ 12.24 · 성탄 축하 전야 행사(교회학교)
- ▶ 12.25 · 성탄절 예배, 입당감사 예배
- ▶ 12.26 · 시온성 대작전 돌림
- ▶ 12.31 · 장로/권사 은퇴, 원로장로 추대식 교회학교 졸업식 공동의회 송구영신예배

12월 학습 세례식

12월 학습 세례식이 20일(수) I, II부 예배시 거행된다. 학습자를 위한 교육은 10일(주일), 세례자를 위한 교육은 17일(주일) II 부예배후 403호실에서 각각 실시되며 이때 교육을 받지 못한 성도는 18일(월) 오후 7시 404호에서 추가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문답은 17일(화) 오후 7시 403호에서 실시한다.

제자의도

영적 전투

에베소서 6:10-20



이종운 목사

유사이래 지구상에는 수많은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때로부터 인류 역사는 어떤 의미에서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원하지 않은 영적 전쟁은 해야만 합니다.

전쟁에는 2등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전쟁에서 성도는 항상 이기되 넉넉히 이겨야 합니다.

1. 적을 알아야 한다.

영적 전투에서 이기려면 먼저 적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탄의 정체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6절). 어둠의 것들은 불신앙과 무지를 말하며 하늘의 악한 영들은 우리 보다 전쟁에 능하고 또한 힘이 있습니다. 하늘의 악한 영은 전쟁의 경험이 많고 사악하고 파괴적인 힘을 가졌습니다.

"마귀의 간계에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11절). 마귀는 간계가 매우 간교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아무리 사악하고 힘이 세도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탄과 전쟁을 하되 내 힘으로 하면 백전백패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므로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탄은 '우는 자'처럼 위협과 공갈을 하며 우리에게 덤벼듭니다. 사탄은 때때로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런가 하면 사탄은 또 친구처럼 간사하게 유혹하기도 하고 때로는 빛의 사자처럼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며 무소부재 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면 우리는 이 전쟁에서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전투에서 이기기 위해서 얼마나 고민하고 또 준비하고 있었습니까?

첫째는 적의 위력과 한계를 알아야 할 것이고 둘째는 자신을 강건하게 하고 무장을 든든히 해야 할 것입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10절). 우리는 항상 주님 안에서 살아야 하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는 바울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다. 본문의 '강건 하라'는 권면이라기 보다 명령입니다.

2. 하나님의 편안갑옷을 입어라.

(1)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허리띠는 군인들이 갑옷을 입을 때 필수적인 것입니다. 군인이 허리띠를 띠는 것은 기동하는데 아주 중요한 것처럼 성도가 움직이는데 필수적인 것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신앙과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보다는 진실 하라는 것입니다. 이같은 내적 진실함은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 오는 것이므로 교리적인 진리와 구별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무장을 하기 전에 바울이 먼저 언급한 것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말씀 진리 위에 진실하지 못하면 영적 전투에서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진리로 허리띠를 동인 자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2) 의의 호심경을 붙여라.

의의 호심경은 영어로 breastplate로 가슴에 대는 흉배를 말합니다. 로마 군인들은 전쟁에 나갈 때 가슴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 가슴에 흉배를 붙였습니다. 성도는 가슴에 의의 호심경을 붙여야 합니다. 여기서 의도 두 가지를 말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의이고 또 하나는 깨끗하고 바른 삶입니다. 그러므로 의의 호심경이란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맺는 거룩한 생활의 열매를 말합니다.

(3)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어라.

신발은 누구에게나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등산을 할 때라든가 특히 군인이 전쟁을 할 때 신발이 편안하지 않으면 매우 곤란을 당하게 됩니다.

'평안', '복음', '준비'는 중요한 의미를 시사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복음을 알고 있고 이 복음은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야 합니다. 신은 몸의 이동성을 돕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발은 평안의 복음을 예비하여 적극적으로 증거 하러 다녀야 합니다. 이와 같이 복음을 다른 사

람에게 날라다 주는 일을 할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4)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로마 군인들에게는 얼굴을 가리는 작은 방패와 온몸을 가리는 큰 방패가 있는데 본문의 믿음의 방패란 후자를 말합니다. 믿음의 방패는 원수의 화살을 막아줍니다. 악한자의 말이나 간사한 자의 말도 믿음의 방패가 막아줍니다. 악한 마귀는 저주의 화살 혹은 절망의 화살을 쏩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에게 믿음의 방패가 있다면 이 모든 것을 넉넉히 막을 수 있습니다.

(5) 구원의 투구를 써라.

구원은 우리에게 이미 약속된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소망으로 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이 활발하게 일을 하고 어려운 중에서도 용기를 가지고 인내하며 싸웁니다. 약속된 구원을 믿고 그것을 소망으로 지켜나갈 때 그 구원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임하게 됩니다.

(6)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은 가지라.

검은 방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을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찢러 쪼개기까지"(히 4:21) 한다고 했습니다.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속에 있는 죄와 허물을 찾아내 쪼개십니다. 감춰진 죄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소리를 치고 나오므로 그래서 회개를 해야만 우리가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성도를 감화 감동시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뿐만 아니라 진리에 대한 확신은 감탄을 일으켜 그리스도에게 헌신하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3. 영적 전투의 전략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18절).

성도가 영적 전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전략은 기도입니다. 목사가 설교를 할 때도 기도로 말씀을 받고 준비하여 기도로 잘 익혀서 성도들에게 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말씀을 받지 않고는 바르게 증거할 수 없습니다.

기도는 모든 경우에 해야 합니다. 기도 없이는 모든 일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어떤 경우에도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모든 종류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감사의 기도, 탄원의 기도, 고백의 기도, 찬양의 기도를 항상 깨어서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 말씀을 맡은 주님의 종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9년을 돌아보며

“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

이영희 권사 (3교구)

바벨론 강변에 앉아 시온을 바라보며 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많은 포로생활에서 돌아와 이방인의 온갖 방해속에서도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였던 것처럼 살을 깎는 듯한 아픔과 눈물과 기도로 시작한 서울교회는 설립9주년과 함께 12월25일이 되면 꿈에도 그리던 입당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제 마무리 작업을 하는 현장은 바쁘게 움직이는 일꾼들의 손을 통하여 하나 하나 아름다운 모습들로 변하여 가고 있음을 보면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95년9월 힘들게 땅을 구입했지만 건축에 진척이 없어 조금해 했던 지난 날들을 뒤돌아 보면 감사한 일들 뿐입니다.

무엇보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아브라함처럼 아무것도 가진 것없는 현실에 그렇게 큰 비전을 가지셨던 목사님을 바라

보면서 때로는 의심하고 염려하였던 내 작은 믿음이 부끄럽게만 여겨질 따름입니다. 우리는 결국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기적의 체험과 인도하심을 보면서 남은 공사에 필요한 것도 채워 주시리라 믿습니다.

특히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우리 교회의 큰 일들을 통해 저같이 작은 자로 하여금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케 하시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는 것이 감사합니다. 만약 좀 더 수고하였다면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아까운 것도 힘든 것도 없이 다만 기쁨으로 일할 수 있는 기쁨을 맛본 것이 감사합니다. 저희 가정은 사랑의 빛과 기도에 빛진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날 까지 조심스럽게 겸손하게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하며 살아가려 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성도들의 기도가 모여 이루어짐을 바라보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임직을 받은 후

참 제자가 되립니다.

이경화 집사 (9교구)

서리집사 교육안내문을 받았을 때 저의 가슴엔 뭔가 몽클함이 느껴졌습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제자되어 살 것을 다짐한 지 13년! 그리스도인으로서 스스로를 돌아보니 열심을 다하지 못한 자신이 너무도 부

끄럽습니다.

이런 미흡한 저를 아버지께서 일꾼으로 부르시니 이 은혜, 이 감사를 어찌하오리까?

아버지에 대한 저의 사랑이 식어갈 때에도 그 분은 저를 늘 기억하시고 지켜주셨으며 이렇게 신앙의 새로운 계기를 주셨습니다.

믿음으로도 세상적으로도 어린 제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힘을 주소서. 능력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

우리라는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처음 다가갈 때의 그 뜨거움과 사랑을 찾고자 하는 새로운 각오를 다집니다.

또한 교회와 이웃을 위하여, 믿음의 선배 어르신들이 보이신 순종과 겸손을 배우고 따르겠습니다.

여러 성도님들의 기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며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폭소를 자아내던 어느 목사님의 예화 하나가 생각납니다.

입을 ‘헤’벌리고 버스에 앉아 졸고 있던 아주머니... 그 앞에서 껌을 질경 질경 씹던 남학생이 ‘툭’하며 창밖으로 내 뺏았던 껌이 버스 손잡이에 맞고 그만 아주머니 입속으로 쏙 들어갔대요. 한밤중이던 그 아주머니는 내 껌인지 내 껌인지도 모르고 그 껌을 맛있게 씹더라나요.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기에, 이러한 어두움 속에서 꾸벅 꾸벅 졸며, 내것인지 내 것인지 분간 못하며 말씀을 마구 먹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속에서 흑자는 재물을, 또는 명예를, 지식, 사람의 의를, 그리하여 세상에서 큰 자가 되기를 추구하고 있지요. 그리고는 풀

같이 단 하나님의 말씀이라나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존재는 아랑곳 없고 그 분을 핑계로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실상 깊은 잠에 빠진 사람들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으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탐심은 우상승배니라. 그리고 작은 자가 되라고...

유년부로 오세요!!!

이영희 전도사

인사드립니다.

대학부를 향하신 계획

오혜진 (신임 대학부회장)

알고오신 주님! 항상 주님은 이만하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할 때 다시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향해 안타까워 하고, 한없이 낮아져야 하는 자리를 통해서 저를 훈련시키시길 원하시나 봅니다.

그분의 저 개인과 대학부를 향하신 계획하심을 기대합니다.

젊은 날에 주님이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신 것은 그만큼 훈련을 통해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뜻이 있으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젊은이의 열정과 신선한 생각들로 주님을 뜨겁게 찬양하며 주님을 전하는 대학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울교회의 젊은이들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아름다운 이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낮아짐으로 일하는 일꾼이 되기 원합니다. 대학부 젊은이들이 씩씩하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지켜보아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어두움 속에 있을 때, 울법속에 갇혀있을 때 사울은 지식과 명예와 세상 것들을 자랑하는 큰 자였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는 아주 작은 자로 바뀌었습니다. 예! 바울은 작은 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안에 있는 그는 얼마나 큰 자인지요. 왜냐구요? 아주 크신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이죠.

유년부는 작은 자들의 모임이랍니다. 바울과 같은 작은 자가 되고 싶으세요? 유년부로 오세요. 유년부는 그리스도 예수안에 있는 자들의 모임이랍니다. 바울과 같은 큰 자가 되고 싶으세요? 유년부로 오세요. 유년부의 문은 항상 활짝 열려 있습니다. 어린이도 교사도 언제나 환영합니다!!!



남산에서 암기한 성경

함은희 권사 (7교구)

8월 초 찌는 듯한 더위가 계속되는 어느 날 남산에서 조깅하던 중 문득 성경암송을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어 급히 코스를 완주하고 집에 와서 마태복음 5장을 써서 외우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부딪치는 말씀마다 나에게 은혜요 눈물이요 회개요 감사가 넘치는 것이 아닌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하는 주옥같은 말씀에 8월이 저물어갔다. 그러면서 5장은 암기되어 갔다.

9월 또 6장을 쓰고 외우기 시작했다.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 갓으시리라” 말씀마다 은혜요 도전이었다. 지금껏 내가 한 모든 것이 너무나 어리석게 생각되었고 미련한 나를 바라보게 되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에 정말 육체에 새겨진다는 말씀이 현실이 되어 나에게 박혀왔다.

10월 단풍속의 남산에서 7장을 또 외우기 시작하였다. 1절부터 도전이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형제 눈속의 티 - 내 눈속의 들보” 늘 들던 말씀인데 왜 이제 와서 내 마음을 찢어 놓으며 나를 흔들며 놓는다는 말인가? 정말 주님의 말씀이 가슴팍에 박히며 눈물로 콧물로 무던히도 가슴앓이 하며 산길을 다녔다.

11월의 총정리로 5~7장까지 남산에서 외우기를 7번을 할 수 있었다.

중얼 중얼 외우며 다니니 어떤 산책하는 분이 “저 여자 약간 미쳤구만” 하는게 아닌가? 정말 예수님에게 제대로만 미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말조차도 부럽게 들려지는 것이었다. 그런데 한가지 큰 걱정이 있다. 이 글을 읽는 혹자들이 나를 신앙적으로 업그레이드된 사람으로 볼까봐 정말 걱정이이다.

그러나 나는 절대 그렇지 못하다. 나는 오늘도 남의 티를 얘기했으며 남과 내가 다른 점을 이해하지 못하고 비판을 하고 내일 일을 걱정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다. 그러나 난 한가지 믿는 게 있다. 주님이 나의 모든 속성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용서하여 주실 것을 믿는다. “주님! 주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 동정 ■



- 이종윤 목사는 12월 4일 (월) 연세조찬기도회에서 성탄메시지를 선포한다.
- 김선일 집사(임마누엘 찬양대 지휘)는 12월 6일 오후 7시 예술의 전당에서 폴란드 국립교향악단과 협연한다.
- 김정은 권사의 2녀 김수정양은 2001학년도 인천인화여고 총학생회장으로 선출된다.
- 구홍, 이미연 집사 (2교구) 득녀
- 박종용, 김홍경 성도 (9교구) 득녀

☐ 금주 식사제공 가정 : 신임 안수집사, 권사일동

☐ 건축현장 방문팀 : 무지개회 - 4일(월) 새벽기도회 후 새에배당 건축현장 방문

제8학기 성경대학 수료자 명단 (총 271명)

에베소서반 (20명)

김복녀 김인숙 김하중 박명석 박한옥 방계운 손재검 송영강 오충례 원복순 이신정 조선영 조정옥 주화인 최난수 최무순 최영순 최일춘 한금희 함순현

호세아반 (20명)

강애자 김시은 김은미 김은희 김현숙 박경희 송두심 왕경래 윤찬오 이민화 전배호 정병무 정혜승 정호진 조정옥 최용걸 최은실 최일춘 허인숙 허현숙

요한계시록반 (15명)

송두심 최용걸 최일춘 김복녀 심재을 허인숙 오충례 송영강 장효옥 정병무 허현숙 이은옥 이민화 이승희 고정숙

음악교실 (9명)

유을상 이태원 최용걸 이광열 최홍렬 전배호 이순례 오충례 김양희

리더양성반 (207명)

김연숙 김은태 김인숙 김현영 박영자 박정순 이규희 이인선 임송자 임옥균 주화인 최양진 최현인 하영수 김수호 김영심 노순례 박영실 배은희 안정옥 오충례 이관모 이신정 이연숙 이자혁 임인자 장 덕 전하미 주정희 최규조 최근자 최규래 최무순 최봉애 최양혜 최영순 최출열 한정아 허현숙 허희철 황정옥 고정숙 김영심 김영주 김우숙 김유경 김정두 김진희 김현정 남태순 박경희 박문옥 신동기 심화숙 안분선 양옥자 양인수 여영숙 오형철 이명희 이봉규 이영희 이영희 이영희 이혜순 이해란 임인숙 정병무 정하사 최용걸 최일춘 강영자 김규태 김세재 김재술 김현숙 김혜경 박우옥 왕경희 원영애 윤문자 이남북 이보우 이승희 이영희 이은희 임훈규 장효옥 전기섭 정경자 정천수 최차순 홍광숙 최소희 민순규 최미아 엄금순 김종자 손재경 전정숙 김영린 이광열 김남욱 이태상 백수남 탁경준 우상태 정정숙 조철기 김윤자 장양일 이은진 김사라 유을상 김경옥 노송성 김예환 김희진 윤은식 이정자 김차순 이상호 이영숙 이영기 박태희 이부자 진경옥 함은희 임윤자 강희자 강애자 김정운 여현진 이봉선 김영식 한춘홍 서영희 조정식 홍성주 권순단 김순자 김양희 김진숙 김희진 문분순 박두영 서춘식 유 신 윤봉준 이경화 이관규 이금남 이남성 이동만 이상애 장경순 장명순 전용순 전행자 조상희 최영란 황노진 황재연 권장환 박연순 백정순 윤찬오 이복규 이완형 장낙희 최길옥 최중시 한명순 곽 숙 김남순 노문환 박철훈 송인권 송혜숙 오성애 왕경래 윤숙지 이영자 이우상 이현주 장정화 전배호 정연택 조정옥 하 숙 김선희 김숙자 김윤자 나기태 박경희 서희숙 선연자 송두심 송성식 오광환 위성남 이변생 이형희 임상현 조선영 한건석 황인숙

■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 (HLKY 98.1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 (HLKX 1188KHz) 생명은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서울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예배당 건축을 위해
2. 복음화된 통일조국 건설을 위하여
3. 임명받은 사명자 위하여
4. 능어촌 100교회운동을 통해 복음의 열매가 맺히도록

↑ 예배 및 집의

구분	시 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양 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5시30분

↑ 교외약도

